

고등학생의 자아정체성, 스트레스 및 인터넷 중독정도와의 관계

김희숙¹ · 최연희² · 유성자³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¹, 교수², 대동병원 간호과장³

The Study on the Relations among Ego-identity, Stress, and Internet Addiction in High School Students

Kim, Hee Sook¹ · Choi, Yeon Hee² · Yoo, Seong Ja³

¹Associate Professor, ²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³Chief of Nursing Department, Daedong Psychiatric Hospital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 relations among ego identity, stress, and internet addiction in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In order to get the data by self-questionnaire, 750 subject were selected from Aug. 20 to Aug. 31, 2008. The data was analyzed b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12.0 program. **Results:** Ego identity scores were 39.54, stress scores were 64.68, internet addiction scores were 65.34. There were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ego identity and stress, between ego identity and internet addiction. But there was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tress and internet addic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internet addiction was stress related to individual. **Conclusion:** The findings of study suggest that broad internet addiction and stress program should be provided to prevent problems of internet addiction.

Key Words: Identity, Stress, Internet addiction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시기는 인간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신체적, 성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불안정한 시기이다. 이때 자아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하면 역할 혼미에 빠지게 되어 불확실감 및 단절감 등의 감정을 조성하여 통합된 자아를 구축하지 못하게 된다. 즉 자신에 대한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의식이 결여되어 방향감각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마저

상실하게 된다. Erikson (1982)은 자아정체감의 획득은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이라고 하였다. 청소년이 자신의 존재와 자기가 추구해 나아갈 가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자아정체감 혼란이 올 수 있으며, 이 시기에 자아정체감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역할 갈등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부적응을 겪게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없다(Park, 2002). 이에 반해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이 잘 확립되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며, 자신감이 생기고 타인을 수용하며 원만한 사회적 적응이 가능하다(Park, 2007). 그러므로 청소년이 여러 가지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

주요어: 자아정체성,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Address reprint requests to: Yoo, Seong Ja, Chief of Nursing Department, Daedong Psychiatric Hospital, 640-1 Hyomok-dong, Dong-gu, Daegu 701-846, Korea. Tel: 82-53-663-1600, Fax: 82-53-663-1555, E-mail: ella39@hanmail.net

투고일 2009년 10월 27일 / 수정일 1차: 2010년 2월 5일, 2차: 2010년 6월 8일 /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9일

도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요구에 의해 불균형을 지각하는 정도가 높으므로 이로 인해 생리적 및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반응 즉,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표출하는 경향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입시와 관련된 과중한 요구, 새로운 문화의 유입과 적응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Lee et al., 2003). 한국정보문화센터에 의하면,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는 주된 방법이 성인들에 있어서는 음주가 가장 많지만, 10대의 경우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11%로 타 연령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wang, Hwang, & Lee, 2001).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 사용의 부정적 측면인 과도한 컴퓨터 사용으로 야기되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몰입할 경우, 공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가상세계 속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함으로써 사회적 능력이 떨어져서 친구들과 멀어지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성장기 연령층의 수면부족, 체력저하, 우울한 기분, 대인기피 경향, 우울증, 강박증, 충동조절 장애 등 일상생활의 리듬을 깨뜨리는 행위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사회공포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물론 사회적 기능상의 손상을 가져오는 중독증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인 게임중독은 비행 및 범죄로까지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Young & Rogers, 1998).

2000년 한국청소년상담원(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KYCI)에서 전국 초, 중, 고생 1,56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29.0%가 컴퓨터 중독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남자 청소년은 무려 40.0%가 중독 증세를 보여 청소년들은 5명 가운데 2명 정도로 컴퓨터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통신 및 인터넷의 활용은 세계화 및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처리 수단으로써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실태조사 연구(Lee, 2001; Lee et al., 2003),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Kim, 2003; Ryu, Choi, Seo, & Nam, 2004), 모형개발(Cho & Lee, 2004), 요인분석 연구(Han,

2006; June, Sohn, So, Yi, & Park, 2007, Lee, 2008; Lam, Peng, Mai, & Jing, 2009; Yeom, 2007), 스트레스 관련 연구(Lee, & Hong, 2005; So, 2005), 그리고 자아정체성 관련 연구(Lee, 2003) 등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연구대상자를 청소년 시기에 있는 고등학생만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자아정체성, 스트레스, 그리고 인터넷 중독정도에 관하여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심리적 및 신경 생리적으로 중독에 취약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성, 스트레스 및 인터넷 중독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확인하며,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자아정체성, 스트레스 및 인터넷 중독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자아정체성, 스트레스 및 인터넷 중독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성, 스트레스 및 인터넷 중독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정체성, 스트레스 및 인터넷 중독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자아정체성, 스트레스 및 인터넷 중독의 정도를 파악하고, 고등학생의 자아정체성, 스트레스 및 인터넷 중독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일개 중소도시인 G시에 소재한 1개의 실업계 고등학교와 1개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임의 표출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재학생 중 사전설명을 듣고 연

구참여를 수락한 77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처리에 부적절한 20명을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는 750명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자아정체성

자아정체성은 Erikson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Cho (1996)가 개발한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아정체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 '정말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최저 15점부터 최고 60점까지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정체성이 잘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원 척도의 Cronbach's $\alpha = .91$ 로 매우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4$ 이었다.

2)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Lee (1994)가 개발하고 Lee (2001)가 수정 보완한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학교관련, 가족관련, 친구관련, 생활환경관련, 자기자신관련 스트레스로 분류되며 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1점 '전혀 받지 않는다'에서 5점 '아주 많이 받는다'의 5점 척도로 점수의 총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Lee (200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alpha = .87$,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학교관련 .67, 가족관련 .64, 친구관련 .72, 생활관련 .72, 자기자신관련 .76으로 나타났다.

3) 인터넷 중독 정도

본 연구에서는 2002년 한국정보화진흥원(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of Korea, NIA)에서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상생활장애 관련 9문항, 현실구분장애 관련 3문항, 긍정적 기대 관련 6문항, 금단 관련 6문항, 가상적 대인관계지향성 관련 5문항, 일탈행동 관련 6문항, 내성 관련 4문항으로 총 40개 문항,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다. 점수의 범위는 40점에서 160점까지이며, 고위험군(94점 이상), 잠재위험군(82~93점), 일반사용자군으로 구분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하위 요인별로는 일상생활장애 .84, 현실구분장애 .61, 긍정적 기대 .87, 금단 .77,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77, 일탈행동 .71, 내성 .83으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였으며 대상자는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의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실업계 1개교와 인문계 1개교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으로 학교의 두 기관을 방문하여 동의를 얻었고, 보건교사에게 협조를 얻어 연구목적과 설문지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 후 설문지를 보건교사가 직접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연구의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한 뒤 기꺼이 연구에 동참한다는 동의하에 동의서에 서명하고, 준비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를 수락한 학생들에게 직접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으며 소요시간은 15~20분 정도였다. 이때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대상자가 자의적으로 연구참여를 수락한 자료 하며, 중도 포기하고자 할 때 설문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설명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자아정체성,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정도는 최대값, 최소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성,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one way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의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로 실시하였다. 자아정체성, 스트레스 및 인터넷 중독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산출하였다.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인문계 58.7%, 실업계 41.3%이었고, 인터넷 사용시간은 2~3시간 61.7%로 제일 많았으며, 인터넷 이용 장

소로는 자기 집이 87.6%, 인터넷에서 주로 이용하는 분야로는 온라인(인터넷) 게임이 61.2%로 가장 많았다. 가족 대화 상대는 어머니가 58.9%이었고, 문제발생시 의사결정은 부모 의논이 50.0%였으며, 부모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생각은 보통이 42.8%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7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chool type	Academic	440 (58.7)
	Vocational	310 (41.3)
Using time of internet (hour)	≤ 1	247 (32.9)
	2~3	463 (61.7)
	≥ 4	40 (5.3)
Location of computer for internet use	Home	657 (87.6)
	PC room	82 (10.9)
	Etc	11 (1.5)
Favorite internet use	Chat	53 (7.1)
	Game	459 (61.2)
	Site surfing	81 (10.8)
	E-mail	2 (0.3)
	Adult site	4 (0.5)
	Club/cafe action	39 (5.2)
	Music/animation/movie	52 (6.9)
	Internet broadcasting	10 (1.3)
	Etc	6 (0.8)
	No answer	44 (5.9)
	Main consultor of family	Father
Mother		442 (58.9)
Brothers and sisters		243 (32.4)
Etc family		15 (2.0)
No answer		1 (0.1)
Decision maker to handle the matter	By parent's decision	375 (50.0)
	By father's decision	36 (4.8)
	By mother's decision	44 (5.9)
	By one's own decision	295 (39.3)
Parents's attitude to use of internet	Very negative	64 (8.5)
	Small negative	284 (37.9)
	Moderate	321 (42.8)
	Small positive	58 (7.7)
	Very positive	22 (2.9)
	No answer	1 (0.1)

2. 자아정체성, 스트레스 및 인터넷 중독의 정도

대상자의 자아정체성 평균은 39.5±5.58점이었다. 스트레스는 평균 64.6±13.22점이었고, 하위요인으로 학교관련 스트레스가 15.5±3.47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족관련 스트레스 13.5±3.37점, 자기자신 스트레스 12.8±4.122점, 생활환경 스트레스 12.2±3.71점, 친구관련 스트레스 10.4±3.42점이었다. 인터넷 중독정도는 평균 65.3±15.43점이었

고, 하위요인으로는 일상생활장애 16.4±4.75점, 긍정적 기대 10.6±3.68점, 내성 9.0±3.16점, 금단 8.9±2.72점, 일탈행동 8.5±2.61점,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7.9±2.63점이었다(Table 2).

Table 2. Degree of the Variables (N=750)

Variables	Min	Max	M±SD
Ego Identity	18	60	39.5±5.58
Stress			
Related to school	5	25	15.5±3.47
Related to family	5	24	13.5±3.37
Related to friend	5	21	10.4±3.42
Life environment	5	25	12.2±3.71
Related to individual	5	25	12.8±4.12
Total	25	106	64.6±13.22
Internet addiction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9	35	16.4±4.75
Disturbance of reality testing	3	10	3.4±0.95
Addictive automatic thought	6	24	10.6±3.68
Withdrawal	6	20	8.9±2.72
Virtu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5	19	7.9±2.63
Deviate behavior	6	22	8.8±2.61
Tolerance	5	20	9.0±3.16
Total	40	131	65.3±15.43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성, 스트레스 및 인터넷 중독정도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성

자아정체성은 학교별($t=2.85, p=.005$), 인터넷사용시간($F=8.30, p<.001$), 인터넷에서 주이용 분야($F=2.67, p=.007$), 가족 중 주 대화자($F=3.00, p=.030$), 문제발생시 의사결정자($F=5.85, p=.001$), 부모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의견($F=4.72,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전체 스트레스는 문제발생시 의사결정자($F=3.97, p=.008$)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스트레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학교관련 스트레스는 학교별($F=-3.47, p=.001$), 인터넷을 이용하는 장소($F=4.14, p=.003$), 부모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의견($F=2.72, p=.029$)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가족관련 스트레스는 문제발생 시 의사결정자($F=3.63, p=.013$), 부모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의견($F=3.85, p=.00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친구관련 스트레스는 학교별($F=2.17, p=.03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생활

Table 3. Ego-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7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Ego identity		
		M±SD	t or F (p)	scheffe
School type	Academic Vocational	40.0±5.70 38.8±5.35	2.85 (.005)	
Using time of internet (hour)	≤ 1 ^a 2~3 ^b ≥ 4 ^c	40.6±5.84 39.1±5.27 37.8±6.39	8.30 (< .001)	a > b,c
Location of computer for internet use	Home School PC room Friend house Etc	36.6±5.58 42.8±5.63 38.3±5.50 35.6±4.93 40.0±5.00	1.90 (.109)	
Favorite internet use	Chat Game Site surfing E-mail Adult site Club/cafe action Music/animation/movie Internet broadcasting Etc	38.9±5.17 39.0±5.54 40.6±5.89 50.5±9.19 42.0±3.92 40.4±4.91 41.1±5.69 39.8±7.51 37.8±5.12	2.67 (.007)	
Main consultor of family	Father ^a Mother ^b Brothers and sisters ^c Etc ^d	41.1±6.15 39.4±5.55 39.6±5.40 36.4±6.55	3.00 (.030)	a > d
Decision maker to handle the matter	By parent's decision ^a By father's decision ^b By mother's decision ^c By one's own decision ^d	40.2±5.34 39.1±4.88 36.9±5.41 39.1±5.85	5.85 (.001)	a > c
Parents's attitude to use of internet	Very negative ^a Small negative ^b Moderate ^c Small positive ^d Very positive ^e	37.5±5.06 39.0±5.38 40.0±5.32 40.9±5.63 41.0±9.92	4.72 (.001)	c, d > a

환경 스트레스는 학교별(F=3.42, p=.001), 인터넷에서 주로 이용하는 분야(F=2.43, p=.014), 문제발생시 의사결정자(F=2.90, p=.03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자기자신 스트레스는 학교별(F=2.73, p=.007), 문제발생시 의사결정자(F=3.45, p=.016)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4).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

전체 인터넷 중독 정도는 학교별(F=-2.15, p=.032), 인터넷 사용시간(F=33.91, p<.001), 인터넷을 이용하는 장소(F=2.39, p=.049), 인터넷에서 주로 이용하는 분야(F=6.25, p<.001), 문제발생시 의사결정자(F=7.48, p<.001), 부모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의견(F=14.70,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5).

4. 자아정체성, 스트레스 및 인터넷 중독간의 상관관계

자아정체성, 스트레스 및 인터넷 중독과의 상관정도를 살펴보면 자아정체성과 스트레스(r=-.44, p<.001), 자아정체성과 인터넷 중독(r=-.29, p<.001)간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r=.31, p<.001), 스트레스 전체점수와 인터넷 중독의 하위요인 점수 간에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인터넷 중독 전체 점수와 스트레스 하위요인 간에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각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보면 대부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학

Table 4.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750)

Characteristics	Stress, M±SD					Total
	School	Family	Friend	Environment	Individual	
School type	15.2±3.23 16.1±3.72 -3.47 (.001)	13.7±3.26 13.3±3.51 1.70 (.090)	10.6±3.47 10.1±3.33 2.17 (.031)	12.6±3.60 11.6±3.81 3.42 (.001)	13.2±4.10 12.3±4.10 2.73 (.007)	65.4±12.92 63.6±13.59 1.87 (.062)
Using time of internet (hour)	≤1 2~3 ≥4	15.4±3.51 15.5±3.41 16.2±3.86	10.3±3.38 10.4±3.47 10.2±3.26	12.5±3.74 12.0±3.69 12.1±3.85	12.6±4.08 12.9±4.12 12.9±4.36	64.3±13.56 64.7±13.07 65.4±13.16
Location of computer for internet use	Home ^a School ^b PC room ^c Friend house ^d Etc ^e	0.86 (.424)	0.93 (.394)	0.14 (.871)	1.14 (.321)	0.16 (.855)
Favorite internet use	Chat ^a Game ^b Site surfing ^c E-mail ^d Adult site ^e Club/Cafe action ^f Music/animation/movie ^g Internet broadcasting ^h Etc ⁱ	15.4±3.40 14.6±3.05 16.9±3.77 14.6±4.04 13.6±1.16 4.14 (.003) c>a	13.4±3.31 12.6±3.05 14.5±3.72 12.3±3.79 12.0±3.61 2.24 (.063)	10.4±3.42 8.4±3.13 10.6±3.40 14.0±4.36 13.3±2.52 1.86 (.115)	12.2±3.70 10.6±3.58 12.2±3.81 13.3±5.03 12.3±4.51 0.31 (.870)	64.3±13.18 57.4±11.89 67.5±13.57 66.3±12.50 63.6±11.02 1.46 (.212)
Main consultant of family	Chat ^a Game ^b Site surfing ^c E-mail ^d Adult site ^e Club/Cafe action ^f Music/animation/movie ^g Internet broadcasting ^h Etc ⁱ	14.7±4.58 15.6±3.47 16.1±2.93 12.0±5.66 15.7±5.50 15.2±3.00 15.5±3.12 13.5±3.81 16.1±3.87 1.41 (.187)	13.8±3.70 13.4±3.38 13.8±3.19 12.0±2.83 13.5±4.51 14.4±3.91 13.8±3.21 13.7±3.83 13.0±2.45 0.60 (.778)	9.7±3.39 10.2±3.45 11.3±3.38 12.0±2.83 9.0±3.37 10.6±2.85 10.3±3.24 10.2±3.74 12.8±2.64 1.65 (.106)	12.0±4.24 11.9±3.79 13.7±3.43 11.5±0.71 12.7±2.63 12.9±3.49 11.7±3.22 13.2±3.36 13.0±2.61 2.43 (.014) c>b	62.7±15.82 64.2±13.44 68.0±12.09 56.5±6.36 63.0±14.97 66.9±12.72 63.8±11.60 63.1±15.26 67.8±9.83 1.16 (.319)
Decision maker to handle the matter	Father Mother Brothers and sisters Etc	15.1±3.89 15.7±3.44 15.2±3.37 17.4±3.82 2.91 (.034)	13.4±3.75 13.5±3.40 13.7±3.23 14.0±3.87 0.20 (.898)	10.2±3.52 10.5±3.47 10.2±3.27 11.1±4.57 0.55 (.647)	11.2±3.97 12.3±3.74 12.1±3.56 12.3±4.47 1.33 (.264)	62.3±14.76 65.2±13.31 63.9±12.61 69.8±14.19 1.76 (.153)
Parents' attitude to use of internet	By parent's decision ^a By father's decision ^b By mother's decision ^c By one's own decision ^d t or F (p) scheffe	15.2±3.38 15.9±3.55 15.7±3.95 15.9±3.48 2.04 (.107)	13.2±3.26 14.2±3.07 12.8±3.65 14.0±3.46 3.63 (.013)	10.2±3.50 10.6±3.18 9.8±3.47 10.7±3.34 1.57 (.195)	11.9±3.65 12.1±3.10 11.2±3.88 12.6±3.81 2.90 (.034)	63.1±13.42 65.7±10.15 63.4±14.41 66.6±12.91 3.97 (.008) d>a
	Very negative Small negative Moderate Small positive Very positive t or F (p)	16.2±4.19 15.5±3.40 15.2±3.30 16.6±3.50 15.8±3.75 2.72 (.029)	14.2±4.15 14.0±3.11 13.2±3.29 12.7±3.37 12.9±4.47 3.85 (.004)	10.0±3.32 10.7±3.44 10.3±3.41 10.1±3.56 10.0±3.35 1.04 (.388)	11.5±3.45 12.4±3.52 12.2±3.85 11.8±3.60 11.7±4.99 1.01 (.404)	65.7±12.64 65.9±12.84 63.7±13.43 63.5±13.23 62.3±16.08 1.42 (.226)

(N=750)

Table 5. Internet Addi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Internet addiction, M±SD						Total	
	DAF	DoRT	AAT	Withdrawal	VIR	DB		Tolerance
School type	Academic 16.1±4.53 Vocational 16.8±5.02 t or F (p) -1.96 (.050)	3.4±0.86 3.5±1.06 -2.20 (.028)	10.4±3.54 11.0±3.85 -2.17 (.031)	8.0±2.66 9.0±2.81 -0.81 (.420)	7.6±2.50 8.4±2.72 -4.43 (<.001)	8.8±2.54 8.8±2.71 -0.02 (.988)	9.0±3.06 9.0±3.30 -0.17 (.865)	64.3±14.55 66.8±16.51 -2.15 (.032)
Using time of internet (hour)	≤1 ^a 2~3 ^b ≥4 ^c 33.86 (<.001) c>b>a	3.3±0.69 3.5±1.00 3.9±1.39 10.79 (<.001) c>b>a	9.9±3.41 10.8±3.68 13.1±4.09 14.53 (<.001) c>b>a	8.2±2.58 9.0±2.70 10.9±2.62 19.9 (<.001) c>b>a	7.4±2.30 8.1±2.70 9.7±2.75 15.95 (<.001) c>b>a	8.4±2.25 8.9±2.70 9.9±3.16 6.87 (.001) c>a,b	8.1±3.00 9.3±3.08 10.9±3.64 20.13 (<.001) c>b>a	60.3±13.91 66.7±15.02 79.2±17.18 33.91 (<.001) c>b>a
Location of computer for internet use	Home ^a School ^b PC room ^c Friend house ^d Etc ^e 12.0±2.65 1.27 (.280) c>b>a	3.4±0.89 5.2±2.78 3.7±1.07 3.0±0.00 3.0±0.00 6.97 (<.001) b>a,c,d,e	10.5±3.56 13.0±3.67 11.5±4.37 14.0±6.25 9.3±2.52 2.64 (.033)	8.8±2.73 10.0±2.45 9.2±2.76 8.0±2.00 6.3±0.58 1.23 (.296)	7.8±2.57 10.0±2.65 8.8±2.93 6.6±2.08 6.3±0.58 3.72 (.005) c>a	9.7±2.52 9.6±2.51 9.5±3.18 7.0±1.73 6.6±0.58 2.54 (.039)	9.0±3.16 9.4±0.55 8.8±3.31 8.0±1.00 6.3±2.31 0.71 (.583)	64.9±15.01 74.8±16.04 68.7±18.25 60.3±8.08 50.0±4.58 2.39 (.049)
Favorite internet use	Chat ^a Game ^b Site surfing ^c E-mail ^d Adult site ^e Club/Cafe action ^f Music/animation/movie ^g Internet broadcasting ^h Etc ⁱ 14.5±3.15 3.97 (<.001) c>b>a	3.3±0.58 3.5±1.08 3.2±0.55 3.0±0.00 4.5±2.38 3.3±0.66 3.1±0.45 3.3±0.68 3.5±1.23 3.05 (.002)	9.6±3.42 11.1±3.71 9.4±3.17 6.5±0.71 3.2±5.44 9.6±3.08 9.8±3.06 8.3±4.52 10.6±5.75 4.31 (<.001)	7.9±2.45 9.2±2.77 8.1±2.22 7.0±1.41 9.2±3.78 8.3±2.05 8.2±2.58 8.6±3.57 9.5±3.15 3.14 (.002)	8.1±2.99 8.2±2.73 7.1±2.25 6.0±1.41 9.2±2.22 7.9±2.00 7.2±2.40 6.6±2.07 7.1±2.32 2.79 (.005)	7.8±1.92 9.1±2.75 8.0±2.63 6.0±0.00 9.5±3.87 8.0±1.57 8.2±2.72 8.5±2.27 8.0±2.36 8.5±2.35 3.99 (<.001)	7.6±2.88 9.4±3.22 8.0±2.66 5.0±0.00 10.0±4.62 8.2±2.72 8.1±2.78 8.0±2.36 8.3±2.66 4.78 (<.001)	59.9±14.22 67.8±15.76 59.1±13.37 42.5±3.54 72.2±26.11 60.8±11.47 60.3±13.72 58.1±14.06 62.1±17.96 6.25 (<.001) b>c
Main consultant of family	Father ^a Mother ^b Brothers and sisters ^c Etc ^d 20.2±5.75 3.31 (.020) d>b>c	3.4±0.81 3.4±0.93 3.4±1.02 3.2±0.59 0.33 (.807)	10.5±3.92 10.5±3.62 10.7±3.69 12.7±4.27 1.90 (.128)	8.8±2.35 8.9±2.74 8.9±2.77 9.0±2.83 0.02 (.996)	7.6±2.50 7.8±2.50 8.3±2.86 7.7±2.22 2.32 (.074)	9.1±2.77 8.7±2.66 8.9±2.48 8.5±2.59 0.46 (.709)	8.9±3.23 8.9±3.13 9.1±3.18 9.5±3.78 0.28 (.843)	65.1±16.15 64.8±15.11 65.9±15.76 71.0±17.44 0.96 (.410)
Decision maker to handle the matter	By parent's decision By father's decision By mother's decision By one's own decision t or F (p) 4.59 (.003) c, d>a	3.3±0.71 3.5±0.85 3.6±1.34 3.5±1.13 3.87 (.009) d>a	10.2±3.32 11.5±4.24 11.3±4.18 10.9±3.92 3.17 (.024)	8.5±2.35 8.5±2.21 10.1±3.15 8.2±2.82 8.25 (<.001) c, d>a	7.6±2.32 9.0±3.21 8.0±2.80 8.2±2.82 5.95 (.001) b, d>a	8.5±2.41 9.0±2.41 9.7±2.87 9.1±2.78 4.94 (.002) c, d>a	8.7±3.03 9.0±3.73 10.6±3.28 9.0±3.18 4.77 (.003) c>a, d	62.8±13.22 67.4±17.56 71.5±16.28 67.2±17.05 7.48 (<.001) c, d>a
Parents' attitude to use of internet	Very negative ^a Small negative ^b Moderate ^c Small positive ^d Very positive ^e t or F (p) 16.73 (<.001) a, b>c, d	3.6±1.10 3.5±0.96 3.4±0.83 3.4±0.90 3.3±0.95 1.57 (.179)	12.7±4.58 10.8±3.54 10.1±3.44 10.9±3.37 9.6±4.22 7.73 (<.001) a>b, c, e	10.1±3.32 9.1±2.67 8.5±2.60 8.2±2.39 8.2±2.76 6.65 (<.001) a>c, d	8.3±2.75 8.2±2.80 7.6±2.41 7.9±2.72 7.9±2.06 2.21 (.066)	9.9±2.75 9.3±2.75 8.3±2.34 8.3±2.37 8.4±2.56 9.09 (<.001) a, b>c, d	10.8±3.40 9.5±3.22 8.4±2.88 7.9±2.78 8.1±3.47 12.71 (<.001) a, b>c, d, e	74.8±17.61 68.0±15.18 61.7±13.90 62.0±14.37 62.2±16.16 14.70 (<.001) a, b>c, d, e

DoAF=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DoRT=disturbance of reality testing; AAT=addictive automatic thought; VIR=virtual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B=deviate behavior.

Table 6.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N=750)

Variables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Ego identity (A)	1.00														
Stress															
School (B)	-.29***	1.00													
Family (C)	-.26***	.42***	1.00												
Friend (D)	-.27***	.23***	.40***	1.00											
LE (E)	-.20***	.32***	.44***	.53***	1.00										
Individual (F)	-.54***	.35***	.45***	.49***	.51***	1.00									
Total (G)	-.44***	.63***	.73***	.72***	.77***	.79***	1.00								
Internet addiction															
DoAF (H)	-.28***	.17***	.25***	.18***	.11**	.31***	.28***	1.00							
DoRT (I)	-.10**	.05	.07	.10**	.09**	.12***	.12***	.38***	1.00						
AAT (J)	-.20***	.20***	.14***	.12***	.09*	.21***	.21***	.39***	.33***	1.00					
Withdrawal (K)	-.27***	.17***	.16***	.17***	.15***	.29***	.26***	.53***	.42***	.59***	1.00				
VIR (L)	-.12***	.15***	.13***	.14***	.09*	.14***	.18***	.37***	.34***	.49***	.46***	1.00			
DB (M)	-.22***	.16***	.19***	.17***	.11**	.24***	.24***	.57***	.38***	.42***	.52***	.42***	1.00		
Tolerance (N)	-.24***	.10**	.18***	.13***	.07*	.30***	.22***	.66***	.35***	.48***	.56***	.40***	.59***	1.00	
Total (O)	-.29***	.21***	.24***	.20***	.14***	.33***	.31***	.81***	.53***	.74***	.79***	.65***	.75***	.81***	1.00

LE=life environment; DoAF=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DoRT=disturbance of reality testing; AAT=addictive automatic thought; VIR=virtu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DB=deviate behavior. * $p < .05$; ** $p < .01$; *** $p < .001$.

교관련 스트레스와 현실 구분 장애, 가족관련 스트레스와 현실 구분 장애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5.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영향 요인을 확인한 결과 자기자신관련 스트레스($\beta=.20, p<.001$), 자아정체성($\beta=-.16, p<.001$), 가족관련 스트레스($\beta=.11, p=.005$)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변수의 총 설명력은 13%이었다(Table 7).

Table 7. Factors influencing on Internet Addiction (N=750)

Variance	R ²	β	F	p
	.13		39.15	< .001
Stress related to individual	.11	.20	90.88	< .001
Ego identity	.13	-.16	54.29	< .001
Stress related to family	.13	.11	39.15	< .005

논 의

본 연구는 일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성, 스트레스 및 인터넷 중독정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인터넷 사용시간이 2~3시간이 61.7%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서울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Seo (2007)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 장소로는 자기 집이 87.6%, PC방이 10.9%로 자기 집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인터넷을 장시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혼자만의 장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선행연구결과(Kim, 2007; Ju, 2008)와 일치되며, Lee (2008)는 PC를 이용하는 장소로 온 가족들이 공유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사용시간을 정해 놓는 등 인터넷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전략을 세우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인터넷에서 주로 이용하는 분야를 보면, 온라인 게임이 61.2%로 청소년층의 인터넷 주 이용목적이 게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Ju (2008)와 Seo (2007)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이 정보수집에 이용되기보다는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등 놀이 수단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 중 주 대화자로는 어머니가 58.9%로 나타났고, 문제발생시 의사결정자로는 부모가 서로 의논해서 결정한다가 50%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인터넷사용에 대한 생각에서 보통이다 42.8%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자아정체성 정도는 39.5 ± 5.58 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스트레스는 평균 64.6 ± 13.22 점으로 평균정도이며 하위요인으로 학교관련 스트레스가 15.5 ± 3.47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와 Je (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So (2005)는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은 다른 나라 청소년에 비해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경쟁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함을 피력했다. 또한 Lee (2008)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측요인으로서 스트레스 요인들 중 학교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군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 정도는 평균 65.3 ± 15.43 점으로 일반 사용자 군에 해당된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이용한 Yeom (2007)의 광주광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70.5점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및 학교특성의 차이에서 발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성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학교별로는 인문계인 경우, 인터넷 사용시간이 짧을수록, 인터넷에서 주이용 분야가 전자우편인 경우, 가족 중 주 대화자로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경우, 문제발생 시 의사결정자로 부모가 서로 의논해서 결정할 때인 경우, 부모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의견에서 매우 긍정적인 경우에서 자아정체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관련 특성과 자아정체성 간의 차이를 본 결과 자아정체성 위기를 슬기롭게 긍정적으로 극복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을 지닌 고등학생은 긍정적 인터넷 이용으로 자기 자신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자아탐색의 과정 중 현실세계에서의 활동을 통한 자아탐색 노력이 보완된다면 자아정체성을 획득하면서 심각한 중독에 이르지 않고 점차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Lee, 2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면, 문제 발생시 의사결정자에서 나 혼자 결정한 경우에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Kim (200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적응성과 응집성의 정도가 높은 기능적인 가족일수록 자녀는 가족원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스트레스나 고민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가족원들과 자연스럽게 의견을 교류하면서 건전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별로는 실업계인 경우, 인터넷 사용시간에서는 4시간 이상인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는 장소로는 학교이용자인 경우, 인터넷에서 주로 이용하는 분야로는 성인사이트 이용인 경우, 문제발생시 의사결정자로는 어머니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 부모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의견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경우에서 인터넷 중독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실업계인 경우가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더 많고, 학업능력 및 진학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기대가 더 낮아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수준이 더 심각하다(Lee, 2001)고 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인터넷을 한다기보다 자기 제어력 부족으로 인한 인터넷 서핑을 무의식적으로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Kim, 2007). 그러므로 가정과 학교에서는 인터넷을 하는 용도나 시간의 규칙을 정해서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장소가 집이나 PC방 보다는 학교이용자인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인터넷 이용 장소가 집, PC방 보다는 기타인 경우가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다는 Kim (2007)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학교에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고, 최근 전자기기의 발달로 학교에서도 휴대용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인터넷 사용교육과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는 기술 등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분야로 성인사이트 이용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분야로 게임(61.2%)이었으며 이는 Seo (2007)와 Ju (2008)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성향은 성인사이트 이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Yeom (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인사이트 이용은 성적욕구 해결의 부작용 외에도 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성적 표현을 무절제하게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반복되면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Yoon, 2005), 사회에서는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놀이 공간 및 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부모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의견에서 매우 부정적인 경우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Han (2006)과 Yoon (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Yoon (2005)은 부모님과 대화시간이 적을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았으며, Han (2006)도 원만하지 못한 부모와의 관계, 지나친 부모의 인터넷 통제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해 가는 시기이면서도 여전히 보호받기를 열망하므로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이며, 부모의 긍정적 지지 및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한 유대감 형성이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정체성, 스트레스 및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자아정체성과 스트레스($r=-.44, p<.001$)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연구결과로 Lee와 Je (2008)는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더불어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보다 예민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낮은 자아정체감은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이를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가진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Lee & Je, 2008).

자아정체성과 인터넷 중독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r=-.30,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ee (2003)의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과 자아정체감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이 충동성, 낮은 자기통제력, 낮은 대인관계 효능감과 관련 있는 것으로 자아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역 기능으로 작용하게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r=.31, p<.001$)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특히 고등학생은 학업에 대한 압박감이나 치열한 입시 경쟁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인터넷 중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많은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Lee & Hong, 2005; So, 2005). 이 연구들의 공통적인 결과는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또한 인터넷이 현실적 갈등이나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부터 회피하게 한다는 것이다.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을 확인한 결과 자기 자신 관련된 스트레스, 자아정체성, 가족관련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 변수들로 총 13.0% 설명되고 있었다. 특히 자기 자신 관련 스트레스가 20.0%로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정도를 설명해 주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확인하였다. 이는 Lam 등(2009)이 고등학생 1,618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최근 스트레스 경험과 가족불만이 인터넷 중독의 잠재 위험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은 스트레스 경험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의미를 제공하고 인터넷이 대처기전으로 사용되어진다. 스트레스는 물질중독 혹은 중독재발경향의 알려진 위험요소이다(Sinha, 2008). 이는 Young (1998)의 청소년의 경우 공부의 압박이 심하여 현실로부터 멀어지거나 도피하고 싶을 때 인터넷에 몰두하게 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오늘날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의 해결도구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일시적인 해결방법일 뿐만 아니라 병리적 인터넷 사용(pathological internet use, PIU), 즉 인터넷 중독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Lee와 Hong (2005)이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가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군에 속할 확률을 증가시키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관계와 청소년 문제 행동 간에 높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Frick, 1994; Greenberg, Speltz & Deklyen, 1993)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있어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현상을 이해하고 예방하는데 있어 학교, 가정, 그리고 친구관계 특히 청소년기의 교우관계에 보다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스스로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교상담 프로그램이나 가족치료 프로그램, 대인관계 프

로그램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일 지역 고등학생의 자아정체성과 스트레스 그리고 인터넷 중독정도의 수준은 중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자아정체성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인터넷 중독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으로 스트레스와 자아정체성이 영향력 있는 변수인 만큼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활성화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정신건강간호관리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 3차 예방보다는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1차 예방사업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아정체성 혼란과 함께 학업과 관련하여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된 고등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이 일개 시에 거주하는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기 때문에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결과와 제한점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광범위한 지역의 남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인터넷 활용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인터넷 중독의 부정적 결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창조적인 일 또는 학업과 연관되어 인터넷을 오랫동안 사용했을 경우에도 인터넷 중독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자아정체성,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므로 이러한 변인들을 활용하여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2개 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750명을 대상으로 인문계·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아정체성, 스트레스 및 인터넷 중독 정도를 규명하고 그 관계를 파악하고,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고등학생의 자아정체성과 스트레스, 자아정체성과 인터넷 중독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으로 자기 자신

관련된 스트레스, 자아정체성, 가족관련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 변수들로 총 13% 설명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일 지역 고등학생의 자아정체성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인터넷 중독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스트레스와 자아정체성이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긍정적 자아정체성 형성과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지도 방안과 향상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REFERENCES

- Cho, H. R. (1996). *A study on the influence youth volunteer activities in ego-identity and moral development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Cho, Y. R., & Lee, H. J. (2004). A study on a model for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3), 541-551.
- Eric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Review*. New York: Norton.
- Frick, P. J. (1994). Family dysfunction and the disruptive behavior disorder: A review of recent empirical finding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16*(2), 203-226.
- Greenberg, M. T., Speltz, M. L., & Deklyen, M. (1993). The role of attachment in the early development of disruptive behavior problem.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1), 119-213.
- Han, M. Y. (2006).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individual psychology and family. Peer environment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Hwang, S. M., Hwang, H. Y., & Lee, S. J. (2001). *A study internet addiction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of Korea, Seoul.
- Ju, S. J. (2008). Internet addiction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7*(1), 46-54.
- June, K. J., Sohn, S. Y., So, A. Y., Yi, G. M., & Park, S. H. (2007). A study of factors that influence internet addiction, smoking, and drinking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6), 872-882.
- Kim, K. L. (2007). *The study adolescence's internet addiction tendency and family communication and family functio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2000). *PC addiction of adolescents*. Seoul: Author.
- Lam, L. T., Peng, G. W., Mai, J. C., & Jing, J. (2009). Factors associated with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2*(5), 551-555.
- Lee, D. S.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 of internet addiction, depression and ego identity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Lee, K. H., & Hong, J. H. (2005). The analysis of stress factors affecting internet addi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17*(1), 48-57.
- Lee, K. W. (2001). *The study on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M. S., Kim, K. Y., Ko, K. J., Lee, H. J., Nam, W., Kim, E. Y., et al. (2003). A study on the related factors with internet addiction of the 11th grade students in an urban area.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36*(4), 390-398.
- Lee, S. J. (2008). *A Study on the factors effecting the internet addiction of the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Seoul.
- Lee, S. S., & Je, M. S. (2008). The factors related to stress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2*(1), 47-58.
- Lee, S. T. (2001). *Effect of students stress factors and methods to overcome stresses on their gloo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Lee, Y. M. (1994). *A study on stress and cognitive appraisal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of Korea (2002). *Internet addiction self report-Korea, NIA*. Retrieved Jan 16, 2007, form <http://www.nia.or.kr/index.aspx?portalID=ko>.
- Park, A. C.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identity negotiation process and well-be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 207-228.
- Park, H. S. (2007). The influence of ego-identity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for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6*(2), 103-112.
- Ryu, E. G., Choi, K. S., Seo, J. S., & Nam, B. W. (2004). The relationships of internet addicti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1), 102-110.
- Seo, M. A. (2007). Correlation of internet addiction, peer attachment, and coping with school lif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6*(1), 5-13.

- Sinha, R. (2008). Chronic stress, drug use, and vulnerability to addiction. *Annal of New York Academy of Science, 1141*, 105-130
- So, B. H.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in the method of coping with the stress and the perceptible level of stress by internet addictive users' among you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Yeom, Y. N. (2007). *Factors influencing internet addiction i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Yoon, H. M. (2005). *Variables as related to internet usage, agg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Young, K. S., & Rogers, R. C.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1), 25-28.